

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백지*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킬로나 Kelowna
파견대학	Okanagan College	기간	2017. 1. 22(일) ~ 2. 12(일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오카나간 컬리지는 다운타운이랑 오차드파크몰(이 2곳은 시내로 거의 맨날 가다시피 한 곳) 사이에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중간에 위치합니다. 그리고 집도 바로 앞 3분 거리여서 다니기 편리했습니다. 시설도 좋으며 학식도 맛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인들이 우리밖에 없어서 영어를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외국인들과 함께 수업하는 건줄 알았는데 같이 간 친구들로 구성된 수업이어서 쉬는 시간에 영어를 쓰기보다 시간이 나면 한국말을 써서 좀 아쉬웠습니다. 하지만 수업 시간에 따로 그 대학의 학생들, 직원 분들과 survey시간이 있어서 나가서 우리들이 만든 survey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직접 사용할 시간을 주었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지루한 ESL수업이 아닌 매 수업마다 다르게 구성해 오셔서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습니다. 월, 수, 금은 오전에만 ESL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시내에 나가 다양한 활동 수업이 있어서 재밌고 유익했습니다.</p>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p> <p>Activity 하면서 따로 든 추가비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. Activity는 볼링 치기, 하키경기 보기, 스키/스노우보드 타기, 컬링 하기, 몰에 가서 쇼핑하기, 아이스케이트 타기가 있었습니다. 주로 캐나다에서 즐겨하는 겨울 활동들을 해서 캐나다의 문화도 배울 수 있었고 몇 개는 한국에서 흔히 할</p>

	수 없고 해본 적이 없던 것들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. 스키/스노우보드/아이스케이트/컬링을 할 때 장갑 등 그 것에 맞는 준비물을 각자 챙기거나 홈스테이 가족들한테 빌렸습니다.
--	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보다 날씨가 따뜻해 가볍게 입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녔지만 마지막 주에는 폭설이 내려 거의 종아리까지 와서 정말 추웠고 부츠가 필수였습니다. 그리고 하늘이 흐리면 따뜻했지만 하늘이 또 맑으면 추운 그런 곳이었습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안전은 정말 좋습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○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숙소 시설은 콘도식의 집이어서 깔끔하고 한 층에 같이 살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. 아침, 점심 식사 둘 다 챙겨주셔서 편했습니다. 가기 전에 캐나다가 물을 아낀다 해서 샤워시간이 정해져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좋았습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(○) 홈스테이 (○) 외부식당 (○) 기타(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아침은 집에서 점심은 홈스테이 맘이 챙겨주신 도시락 저녁은 집이나 외식을 하였습니다. 캐나다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맛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집은 학교 앞 3분 거리로 걸어 다녔습니다. 또한 버스가 자주 오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몇몇 버스는 한 시간마다 오고 정류장이 집과 멀어서 불편하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 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 및 여행자보험	약 1,500,000원	출국 전 사전 납부
쇼핑과 식비	약 500,000원	
합계	2,000,000원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






캐나다에 대해서 알아 가면 홈스테이 가족들과 말할 것도 생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들과 연락을 하여 캐나다 가서 지낼 곳의 규칙과 챙겨가야 할 짐과 거기에 있어서 굳이 안 챙겨도 되는 짐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짐도 줄고 좋은 것 같습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3주 동안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. 3주 동안 모르는 한국인 들이랑 살아도 불편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을 텐데 거기다 외국인들과 살다보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식사 할 때 마다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3주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기회가 되면 더 외국인과 말도 해보고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추천합니다.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어서 영어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와는 달리 그 사람들의 대화 중에 리액션도 배우고 사사로운 것들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curling</p>	<p>downtown</p>
	
<p>snowboarding at silver mountain</p>	<p>last day</p>
	
<p>lake</p>	<p>our class</p>